

3

플라스틱제조근로자에서 발생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

| | | | | | | | |
|----|----|----|-----|----|---------|-------|----|
| 성별 | 남성 | 나이 | 48세 | 직종 | 플라스틱제조직 | 직업관련성 | 낮음 |
|----|----|----|-----|----|---------|-------|----|

1 개 요

근로자 ○○○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□사업장에서 강화플라스틱 제조공정, 품질관리부서, 제품의 유해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. 2007년 10월부터 우측상지의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, 2008년 7월 사지의 근력약화, 호흡곤란으로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및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.

2 작업환경

○○○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□사업장에서 강화플라스틱 제조공정, 품질관리부서, 제품의 유해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.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상 납, 구리, 알루미늄 등의 중금속 노출은 없었다.

3 해부학적 분류

신경계 질환

4 유해인자

화학적 요인(중금속)

5 의학적 소견

○○○은 2007년 10월부터 우측상지의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, 2008년 7월 사지의 근력약화, 호흡곤란으로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및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.

근로자 ○○○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□사업장에서 강화플라스틱 제조공정, 품질관리부서, 제품의 유해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.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서 중금속의 노출가능성은 낮으며, 문헌고찰 결과에서도 근위축성 측삭경화증과 관련이 확실하다고 제시되는 물질은 없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었다.